

딜란 토마스 시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합일

윤석임 *

|| 차례 ||

1. 서론
2. 상생, 공존, 합일의 역동적 공간
3. 논리를 초월한 직관적 순간의 장
4. 결론

[국문초록]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주된 활약을 펼쳤던 영국 웨일즈 시인 딜란 토마스(Dylan M. Thomas; 1914-1953)의 자연 시는 이미 일상화 된 도시 취향의 모더니즘 시, 달리말해서 일반 독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주지주의 시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자연의 세계로 눈을 돌린 시적 모험의 산물이다. 토마스의 진면목은 자기 작품 세계의 근저를 범신론적이고 우주적 의식과 생명력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는 자연을 낭만적 도피처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인간이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무한한 문명의 발달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상과 정신적 피폐함을 가져왔음을 깊이 통감한 토마스는 자연의 진실을 느끼고 그 자연과 일치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질서, 조화, 진실 및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현대인이 상실한 것을 인간의 시원(始原)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자연 속에서 생명이 생성하고 소멸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원초적인 생명과 생명현상의 영원한 생성-파괴-부활과정을 살펴본다. 그 신화적이고 범신론적 세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은 합일을 이루고 그 속에서 죽음마저 자연스러운 순환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주제어 : 딜란 토마스, 웨일즈의 자연, 자연의 순환, 자연과의 합일, 생명의 순환, 웨일즈 시인, 웨일즈 스완지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lityun@ynu.ac.kr

1.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제라드 맨리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와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영문학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 작가”(Perry 5면)로 자리매김하며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던 영국 웨일즈 시인 딜란 토마스(Dylan M. Thomas; 1914-1953)는 2003년 리메이크되어 개봉된 <솔라리스>(Solaris) 영화의 배경시,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리라」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에 이어 2014년 개봉작 <인터스텔라>(Interstellar)의 삽입시, 「순순히 저 밤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로 다시 한 번 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토마스는 20세기 전반을 지배했던 도시 취향과 주지 주의적 모더니즘 시인과 차별되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도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웨일즈(Wales) 자연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낯은 언어를 새롭게 쓰거나 새로운 시적 메타포를 창조하고자 했다. 그는 상상의 눈으로 본 자연의 소리와 몸으로 체험한 자연과의 공감을 언어로 전환시켜 표현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 토마스의 시는 20세기 도시문명의 일상에서 일탈함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문제들을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자연시를 선보인다. 토마스의 시는 시의 배경, 인물, 사건, 언어에서 산업사회의 그것들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농촌이 쇠퇴하고 도시가 중심이 된 산업사회에서도 여전히 자연과 시골 - 토마스의 경우에는 어촌 -을 주제로 한 시인 토마스는 당대 대부분의 도시 취향적 시인들은 물론 19세기 낭만 시와도 다른 시를 쓰고 있었다.

토마스의 자연시는 이미 일상화 된 도시 취향의 모더니즘 시, 달리말해서 일반 독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주지주의 시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시를 읽는 도시 대중에게 이질적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한 자연의 세계로 관심을 돌린 시적 모험의 산물이다. 토마스의 진면목은 자기 작품 세계의 근거를

범신론적이고 우주적 의식과 생명력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는 자연을 낭만적 도피처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인간이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을 증시하는 토마스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의 방식을 연계시킨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영국 웨일즈 자연을 배경으로 한 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현대시인인 딜란 토마스의 시 세계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천착해 보며 토마스의 자연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회귀 본능을 되살리고 자연과의 공생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끊임없는 생명 순환에 기초한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생명력 충전으로 죽음의 두려움마저 극복하고자 한 토마스의 시적 노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상생, 공존, 합일의 역동적 공간

인간은 자연과 언제나 함께 존재해 왔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문학의 지속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 더욱이 생명존중을 표방하는 토마스의 시 세계는 자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특히 범신론적 바탕에서 출발한 토마스는 자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토마스는 “어린시절 혹은 스완지(Swansea)에 대해서 회상할 때”만은 판에 박힌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LV 185면).

생계유지를 위해 뇌물, 갈취, 자본주의적 착취가 판을 치는 런던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친구와의 아래 서신에서 보듯 토마스는 런던을 포함한 현대도시문명에 대해 심한 혐오감¹⁾을 보인다. 반면 웨일즈의 스완지, 그리고 그 곳에서 가까운 란(Laugharne)이라는 바닷가 작은 마을과 그 곳의 그의 보트하

1) 토마스는 런던을 “미친(insane) 곳”이고 시인이 공포감을 느끼는 “불안한 사자의 도시”(LV 49면), “악취를 풍기고 친구가 없는 잠을 수 없는 런던”(LV 11면), “되는 일 하나 없는 험기증 나는 런던”(LV 119면)이라 묘사하며 런던을 비롯한 도시에 대해서 심한 혐오감을 보인다.

우스(boathouse)는 토마스에게 “방, 휴식, 음악, 바다”(LV 132면)까지 제공해 주는 언제든지 마음과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와 포근한 보금자리를 의미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페널드(Pennard)로 갔으면 좋겠지만 가진 돈도 없고, 우울하며, 런던에서 막 돌아 왔고, 런던을 이전보다 더 혐오하기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수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방, 휴식, 음악, 그리고 바다가 있는 여기로 당신이 올 수는 없을까요?(LV 132면)

“까마귀들이 먹여 살린다”(LV 50면)고 할 만큼 아내 케이트린(Caitlin)과 빈곤에 시달렸지만 푸른 물결이 출렁대는 초라한 조그마한 어촌과 그의 보트 하우스가 그에게는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안식처였다. 그러한 토마스의 시는 어촌의 자연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시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경치와 소리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주위에 있는 자연 물상들이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그는 자연 속의 사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삼라만상이 시의 소재이자 탐구대상이다. 동시에 「내 모든 오감과 시골 감각들이 보게 될 때」 (“When All My Five and Country Senses See”)에서 보듯 오감 외의 전원과 자연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관점을 부각시키며 이성과 남성적 시각 중심의 현대사회에 대해 은연중 비교와 비판을 가하고 있다.

토마스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의 범신론적 자연관은 자연이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시인과 합일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은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된다. 자연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본질적 생명의 미는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관계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생의 비밀을 전해주는 기쁨이 된다. 이 점에 대해 밀러(J. Hillis Miller)는 토마스의 시에서 소우주와 대우주를, 시인 자신의 육체와 우주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04면).

예로 토마스는 자신의 삶 자체가 자연과 더불어 시작되었음을 그의 서른번

째 생일을 자축하며 지은 「시월의 시」(“Poems in October”)에서 천명한
다.

하늘 향해 서른 번째 되던 해
소리에 깨었다. 항구와 이웃 숲
그리고 조개가 웅덩이를 파고 백로가
사체를 보는 해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침이 손짓한다.
물의 기도와 갈매기와 떼 까마귀의 부르는 소리
그물 쳐진 벽에 배가 부딪치는 소리와 더불어.
나 스스로 발을 내딛어
바로 그 순간
여전히 잠들어 있는 마을을 떠나가도록.

내 생일은 내 이름을
농장과 흰 말들 위로 나무끼게 하는
저 물새들, 그리고 날개달린 나무들의 새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게 비 오는 가을
나는 일어났고
내 살아온 날들의 소나기 속을 멀리까지 걸어 다녔다.
높은 조수와 왜가리 물속으로 뛰어들 때 나는
경계너머 길을 나섰고
마을의 문은
마을이 깨어났을 때 닫혀버렸다.

It was my thirtieth year to heaven
Woke to my hearing from harbour and neighbour wood
And the mussel pooled and the heron
Priested shore
The morning beckon
With water praying and call of seagull and rook
And the knock of sailing boats on the net webbed wall

Myself to set foot
That second
In the still sleeping town and set forth.

My birthday began with the water-
Birds and the birds of the winged trees flying my name
Above the farms and the white horses
And I rose
In rainy autumn
And walked abroad in a shower of all my days.
High tide and the heron dived when I took the road
Over the border
And the gates
Of the town closed as the town awoke. (CP 113면)

이 시에서 뿐 아니라 초기 시부터 후기 시에 이르기까지 토마스가 그리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약동하는 모습들과 동적이고 활기찬 움직임으로 채워져 있다. 그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상존하듯이 자연 속에도 그러한을 독특하게도 자신의 생일에 지은 또 다른 시, 「그의 생일에 부치는 시」(“Poem on His Birthday”)의 2연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발아래와 주변으로 지나간다.
가자미, 갈매기들이 차가운 죽음의 길을 가며
지시받은 것을 행하며
시끄러운 마도요 새들은 봉장어가 우글거리는 파도 속에
죽음을 향한 길에서 작업한다.
그리고 긴 혀 달린 방에서 운율장이는
생일 종을 울리며
잠복해 있는 그의 상처들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
뽕족 다리를 한 왜가리들은 은총을 빈다.

Under and round him go

Flounders, gulls, on their cold, dying trails,
Doing what they are told,
Curlews aloud in the congered waves
Work at their ways to death,
And the rhymer in the long tongued room,
Who tolls his birthday bell,
Toils towards the ambush of his wounds;
Hérons, steeple stemmed, bless. (CP 190면)

이렇듯 토마스는 인간과 자연에 있어 동일한 힘이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많은 시에서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거듭해서 피력하고 있다.

토마스는 시작(詩作) 초기부터 인간세계와 자연세계가 하나임을 꾸준히 밝혀왔다. 토마스의 초기 시 중 그러한 생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작은 「초록색 관을 통해 꽃을 몰아가는 힘」 (“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이다.

초록색 관을 통해 꽃을 몰아가는 그 힘이
내 푸른 청춘을 내 몰며 나무의 뿌리를 터지게 하는 그 힘이
나의 파괴자이다.
나는 우둔하여 굽은 장미에게 말문을 열 수 없다
내 젊음도 같은 겨울 열병으로 구부러졌다고.

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
Drives my green age; that blasts the roots of trees
Is my destroyer.
And I am dumb to tell the crooked rose
My youth is bent by the same wintry fever. (CP 8면)

꽃을 피우게 하는 자연의 힘이 내 젊음을 꽃피우게 했으나 동시에 나무뿌리를 시들게 하는 자연의 파괴력이 시인의 삶을 시들게 하고 있다고 토마스는 피력한다. “겨울 열병”이라는 모순어법을 통해 식물은 흑한으로 인간은 흑

한만큼 가혹한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함을 주장한다. 인간과 자연을 병치시키면서 그 속에서 순환되고 반복되는 성장, 죽음의 과정이 묘사되는 이 시에 대해 스티븐즈(Raymond Stephens)가 “과정에 관한 최상의 시”(23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시에서 토마스는 생성, 파괴, 죽음과 삶의 과정이 인간과 자연계에 동일하게 작용하며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탠포드(Derek Stanford)는 이 시가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the oneness of man and nature)”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59면).

토마스는 창조와 파괴의 반복적인 순환의 리듬에 의해 영속되는 자연의 힘과 질서에 의해 인간과 자연이 동일하게 지배받고 있음을 이어지는 연에서도 구체적인 자연물상을 예시하며 보여준다.

바위 사이로 물을 몰아가는 힘이
내 붉은 피를 몰아가며 강물의 입을 말리는 힘이
내 피를 밀랍처럼 굳게 한다.
나는 우둔하여 내 정맥에게 말문을 열 수 없다
같은 입으로 산의 샘물을 어떻게 빨아먹는지를.

The force that drives the water through the rocks.
Drives my red blood; that dries the mouthing streams
Turns mine to wax.
And I am dumb to mouth unto my veins.
How at the mountain spring the same mouth sucks. (CP 8면)

인간 육신의 피의 흐름을 산의 개울의 흐름에 비유하며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 매 연마다 반복되는 “나는 우둔하여 말문을 열 수 없다(I am dumb to mouth....)”는 말은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논리적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본다. 자연 속에서 토마스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나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음을 토로한다(Chamberlain 3면).

토마스는 인간의 생명을 일으키고 죽음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힘이 곧 창조

를 일으키고 파괴하며 거두어들이는 자연의 힘과 마찬가지로 거둬들여 3연에서 표현하고 있다.

웅덩이를 휘젓는 손이
유사(流沙)를 휘젓고 부는 바람을 밧줄로 묶는 손이
내 수의(壽衣) 돛을 잡아끈다.
나는 우둔하여 잡아매는(교수형을 집행하는) 이에게 말하지 못한다.
내 흙이 그 잡아매는(교수형을 집행하는) 이의 석회로 만들어져 있다고.

The hand that whirls the water in the pool
Stirs the quicksand; that ropes the blowing wind
Hauls my shroud sail.
And I am dumb to tell the hanging man
How of my clay is made the hangman's lime.(CP 8면)

“hanging”이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 이 연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혹은 자연의 순환을 나를 잡아매는 형상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3연에서도 토마스는 명확히 논리적으로 우주의 제 현상을 통제하는 힘을 알 수 없음을 반복되는 “I am dumb”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토마스의 태도는 미국의 대표적 초월주의자로서 정신을 물질보다도 중시하고 직관에 의하여 진리를 알고, 자아의 소리와 진리를 깨달으며, 논리적인 모순을 관대히 보는 신비적 이상주의자였던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말을 연상시킨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좁은 마음에서 나온 도깨비 같은 것으로, 그릇이 작은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 등이 숭배하는 대상이다. 일관성과 위대한 영혼은 서로 아무 관계도 없다. 일관성을 걱정하는 것은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 (“Self-Reliance” 35면)

토마스는 그의 시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언제나 하나임을 노래하고, 삶은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둘의 역설적 관계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토마스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다음처럼 뻔한 시구로 표현하지 않

기를 조연한다.

나는 바람과 하나이며 산들바람과 하나이다.
나는 평야를 잠기게 하는 급류와 하나이다.
나는 시내와 하나이고 바다와 하나이다.
곡식 안에서 코골고 자고 있는 구더기와 하나이다.

I am one with the wind and one with the breezes.
I am one with the torrent that drowns the plain.
I am one with the streams and one with the seas.
And one with the maggot that snores in the grain. (SL 80면)

단도직입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병치와 여러 단계의 수렴과정을 거친 은유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표현하고자 한다.

마음 날씨의 과정은
습함에서 건조함으로 변화한다. 금빛 햇살이
얼어붙고 있는 무덤 속으로 몰아친다.
정맥의 날씨
밤에서 낮으로 변화한다. 태양속의 피가
살아 있는 벌레를 비춘다.

A process in the weather of the heart
Turns damp to dry; the golden shot
Storms in the freezing tomb.
A weather in the quarter of the veins
Turns night to day; blood in their suns
Lights up the living worm. (CP 6면)

토머스 는 마음의 날씨를 자연의 날씨로, 소우주와 대우주를, 정신과 육체의 동일시를 보여준다. 그는 만물의 일체에 관해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는 분리

된 것이 아니다. 아마 위대한 예술작품들은 완벽하게 내부와 외부를 화해시키는 그런 것일 거다.”(SL 10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상반, 대립되는 두 요소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의 궁극적인 비전이 완전과 조화를 성취해 나가는 것임을 제시하려 한다. 주체와 객체가 융합되어 “혼합된 이미지(mixedness)”가 아니라 “변화되고 변모된(changed and transfigured)” 하나의 이미지가 되며 주체와 객체, 더 나아가 객체 사이의 진정한 합일 과정을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이 제비나 장미와 하나라면 장미는 제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을 결합시켜 어떻게 살(flesh)이 나무를, 그리고 나무의 살이 당신을 덮는지를 당신의 말과 이미지로 보여라.(SL 81면)

토마스는 자연에너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현현(顯現)의 순간을 자전적 소설, 『강아지예술가의 초상』(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Dog)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른 저녁 가슴 졸이며 혼자 카마든 근처 시커먼 그림자를 드리우는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보니 무성한 고스힐 숲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야생 새와 물고기들이 네 갈래 줄기가 난 꽃나무 아래서 팔딱거리며 뛰고 있었다. 친구 잭 윌리엄스는 보이지 않았고 흥분한 동물에 둘러싸인 양 몸으로 온전히 주위를 느끼고 있었다. 다친 무릎, 쿵쿵거리며 뛰는 심장, 다리 사이 전해오는 열감, 손바닥에 고이는 땀, 고막과 귓구멍, 발가락 사이에 뭉쳐진 때, 눈 속의 눈동자, 혈떡거리는 숨소리, 급히 달리는 피, 이 모든 걸 난 느꼈다... 인디언 놀이를 하던 그날 저녁, 그곳에서 나는 내가 살아 있는 이야기 중심에 정확히 서 있음을 알았다.(12-13면)

어두워져 가는 자연 속에 온전히 홀로 남게 된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생명에너지가 약동하는 것을 느꼈으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하나됨을 오감과 의식을 통해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홀로이드(Stuart Holroyd)는 토머스를 “본능적 생명”을 찬미한 종교 시인이라고 주장한다

(140면). 생명의 성스러움을 회복하고 신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자연종교시인의 면모는 「내가 떼어내는 이 빵」(“This Bread I Break”)에서 백분 발휘된다.

내가 떼어내는 이 빵은 한 때 귀리였고,
이 포도주는 이국의 나무
열매 속에 뛰놀았다.
낮에 사람이 혹은 밤에 바람이
곡식을 넘어뜨리고 포도의 기쁨을 깨어버렸다.

한 때 이 포도주 속 여름의 피가
포도 넝쿨을 장식한 살 속에 들어갔다.
한 때 이 빵 속의
그 귀리는 바람 속에서 즐거워했었다.
인간이 태양을 부수었고 바람을 끌어내렸다.

당신이 떼어내려는 이 살, 당신이 흘리는 이 피는
정맥 속에 황폐함을 가져올 것이다.
귀리와 포도가
관능적 뿌리와 수액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신은 내 술을 마시고 내 빵을 떼어내는 것이다.

This bread I break was once the oat,
This wine upon a foreign tree
Plunged in its fruit;
Man in the day or wine at night
Laid the crops low, broke the grape's joy.

Once in this wine the summer blood
Knocked in the flesh that decked the vine,
Once in this bread
The oat was merry in the wind;

Man broke the sun, pulled the wind down.

This flesh you break, this blood you let
Make desolation in the vein,
Were oat and grape
Born of the sensual root and sap;
My wine you drink, my bread you snap. (CP 45면)

그리스도의 육신과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시에서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귀리가 이전에 만나 품고 있던 바람을 먹는 일이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포도 살이 담고 있는 태양을 먹는 것이니 인간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귀리와 포도를 통해 바람과 태양을 만나면서 인간 몸이라는 소우주는 대우주와 하나가 된다. 결국, 인간과 신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초월적 경험을 완성한다 (Fraser 10면).

3. 논리를 초월한 직관의 순간의 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머스의 시에는 논리를 거부하거나 초월하고자 하는 구절이 있다. 「태양이 빛나지 않는 곳에 빛이 터진다」(“Light Breaks Where No Sun Shine”)라는 시의 마지막을 보면

은밀한 곳에서 빛이 터진다
생각이 비에 젖어 냄새를 풍기는 사유의 끝단에서도.
논리가 죽으면
흙의 비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피는 햇빛 속에 도약한다.
황폐한 구획된 경작지 위로 새벽이 멈추어 서있다.

Light breaks on secret lots,
On tips of thought where thoughts smell in the rain;
When logics die,
The secret of the soil grows through the eye,
And blood jumps in the sun;
Above the waste allotments the dawn halts.(CP 30면)

서구문명의 이분법적 사고의 바탕을 이루는 데카르트 식의 논리로 나누고 구획 지으며 논리라는 미명하에 어둠 속에 남아있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인간 생명의 비밀을 상징하는 흙의 비밀은 은밀하게 생명을 키우는 빗물로 성장하여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며 생명의 약동을 알리는 태양이 새벽과 함께 도래할 것이다. 논리적인 방식으로는 현상계의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토머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올슨(Olson)은 다음과 같이 토머스의 통합적 관점을 설명한다.

그[토머스]는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우주구조에 비유하며 인간 소우주를 대우주의 이미지로 볼 뿐 만 아니라 그 역으로도 인식한다. 이러한 유추과정을 통해 전체 상징이 만들어진다.(8면)

따라서 인간 소우주는 자연을 포함한 대우주와 동일하며 ‘지금’ 이 ‘순간’ 속에 ‘영원’이 있고 ‘유한’ 속에 ‘무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의 초월주의자들의 것과 유사한 이러한 우주관에 대해 밀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보탠다.

토마스는 조각, 조각 따로 떼어서는 이해될 수 없고 오로지 낱말 속에서 단 한 번의 도약에 의해서만 독자가 직접 접근 가능한 낱말의 구조를 창조하기 위해 애쓴다.(195면)

이렇게 ‘한 번의 도약’으로 파악하게 되는 직관적 깨달음의 장으로서의 자연은 동시에 토마스의 시에서 시인이 생명, 행복, 기쁨 뿐 아니라 인류의 시초

에로의 회귀마저도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

경쾌하고 활기찬 집들 근처 사과나무 가지 아래에서 어리고 걱정 없고
푸르른 풀처럼 행복했던 내게 지금
깊고 깊은 골짜기 위로 별 가득한 밤,
시간은 나로 하여금 소리치고 올라가기를 허락한다.
그의 눈에 전성기 시절의 금빛으로
그리고 한 때 마차들 사이에서 사과마을의 왕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나는 나무와 낙엽사이를 제왕같이 걸었다
테이지 꽃과 보리가 나있는
바람에 떨어진 빛의 강을 따라.

Now as I was young and easy under the apple boughs
About the lilting houses and happy as the grass was green;
The night above the dingle starry,
Time let me hail and climb
Golden in the haydays of his eyes,
And honoured among wagons I was prince of the apple towns
And once below a time I lordly had the trees and leaves
Trail with daisies and barley
Down the rivers of the windfall light.(CP 178면)

토마스는 산고의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오로지 영원한 생명
이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영주처럼(lordly) 군림했던 에텐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windfall light) 죽음과 고통을 알게 되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은연중에
희망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 의해 지배되기 전(once below a time)”으로
의 회귀를 꿈꾸며 그 아름다웠던 과거가 “영원한 지금(eternal now)”(Tillich
131면)이 되기를 회구한다. 이 시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아가 조우하는 지점
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연이 지속적으로 함께 제시된다는 점이다. 바다, 새,
달, 별 등 다양한 자연의 요소가 죽음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현재 시인의 의
식 속에 제시되며, 이는 과거의 자아와 자연이 하나로 맞물려 일종의 통합적

기억의 형태로 현재 화자의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는 과거 자신과 일체가 되었던 자연을 현재에 다시 수용하면서 그 암시들을 재 해석하며 이곳과 저곳을 함께 묶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토마스가 표명하고 있는 신념은 영원한 자연 순환 과정 속에서는 걸 모습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고 불멸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그에게는 어떤 존재든 그 존재의 실질적인 종말, 다시 말해 죽음은 없으며 단지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죽음”을 탄생보다 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둘 다 삶의 영원한 순환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죽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설령 죽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올슨(Olson)의 말처럼 “순간보다는 변화를 다루며”(33) 토머스는 죽음 뒤에 삶이 계속된다고 말함으로써 죽음과 삶을 계속되는 자연 영속적 순환 과정(Cycle of Life)의 일부로 보고 있다.

4. 결론

2003년, 2014년 두 편의 영화의 배경 시로 사용됨으로써 새롭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딜란 토마스의 시에는 서로 대립 및 상반되는 요소들이 동일 선상에서 제시된다. 출생과 죽음을 동일 순환과정으로 파악하고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 정신과 육체 등 많은 대립 항들이 시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토마스의 사상적 경향의 근원을 애커먼(John Ackerman)은 웨일즈인의 신비주의적인 배경에서 생겨난 것으로 파악한다. 웨일즈의 신비주의는 실제세계를 양면으로 보며, 분리 속에서 통합을 인식하고, 삶과 죽음의 동시성을 깨달으며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영원한 순간”으로 보는 역설적 통합의 세계이다(6).

“바다 파도의 아들(Dylan Eil Ton : Sea Son of the Wave)”이라는 웨일즈의 신화에서 이름을 딴(FitzGibbon 25면) 시인 딜란 토마스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지성주의와 남성적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 다섯

가지 감각뿐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통해 현대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토마스의 시 세계는 대체로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며 모순, 대립, 양극적인 두 상반되는 요소의 동일시가 시의 주조를 이룬다. 인간과 자연 역시 모순과 대립과 갈등을 통해 생성과 파괴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flux)는 토마스의 생각은 그의 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연계 및 우주에 대한 이교적인 쾌락과 경이의 요소마저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함께 수용하며, 감성과 지성, 선과 악을 동시에 긍정하는 조화된 이원론을 표방하는 토마스가 선보이는 자연관은 생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과 긍정을 나타낸다. 마치 자연이 불멸하듯이 자신도 영원불멸하다 말하는 듯하다. 이상적인 지식과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독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통상적인 논리와 지식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과 합일의 노래를 생동적인 어휘와 리듬으로 살아 숨 쉬는 순환적 시 형식을 통해 우리 독자에게 낭랑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음을 말이다. 그의 시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분리와 소외를 통해 고립화를 자초하고 그 속에서 고독감과 절망감에 신음하는 21세기 독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공명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시가 잔잔히 흘러나오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솔라리스>와 <인터스텔라> 영화의 주제처럼 삶의 존엄성 회복과 생명의 영속성을 다시금 회구하게 한다.

[ABSTRACT]

Oneness of Man and Nature in Dylan Thomas's Poetry

Yun, Suklm

This paper examines one of Dylan Thomas's central themes : the predominance of oneness and unity of man and nature. Swansea, a coastal city in the country of Wales is not only the area in which Thomas finds his most congenial subjects; it provides the framework in terms of which he can most effectively picture reality. Thomas shows the man-nature equation or the oneness of man and nature which strengthens through interactions of qualities of our emotional access towards man and nature. In his poetry, life manifests itself in both a living subject and an objective environment. Life at each moment encompasses both self and environment of all sentient beings in every condition of life as well as insentient beings—plants, sky and earth, on down to the most minute particles of dust and even death. His poetry of a dialectical overcoming of abstract critical reason reconciles the Kantian separations and restores an immediate oneness of man and nature, of macrocosm and microcosm, and of the opposites.

Key words : nature poems, nature of Wales, flux, oneness, unity, Dylan Thomas, Wales poet

참고문헌

- Ackerman, John. *Dylan Thomas : His Life & Work*. London: Oxford Univ. Press, 1964.
- Chamberlain, Richard. "Fuse and Refuse: The Pastoral Logic of Dylan Thomas's Poetry."(<http://www.dylanthomasboathouse.com>).
- Emerson, Ralph Waldo. "Self-reliance." *Essays: First and Second Series*. New York: First Vintage Books (1990). 27-52면.
- FitzGibbon, Constantine. *The Life of Dylan Thomas*. London : J. M. Dent & Sons (1975). 24-5면.
- Fraser, G. S. *Writers & Their Work*. Longman Group Ltd., 1972.
- Holroyd, Stuart. "Dylan Thomas and the Religion of the Instinctive Life." *A Casebook on Dylan Thomas*.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60). 139-152면.
- Miller, J. Hillis. *Poets of Reality: Six Twentieth Century Writers*. Cambridge, Mass. : Harvard UP, 1965.
- Olson, Elder. "The Universe of the Early Poems." *Dylan Thoma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C. B. Cox. New Jersey: Prentice-Hall (1966). 45-59면.
- Perry, S. J. *Chameleon Poet : R. S. Thomas and the Literary Tra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Stanford, Derek. *Dylan Thomas: A Literary Study*. London: Neville Spearman LTD., 1964.
- Stephens, Raymond. "Self and Word - The Earlier Poems." *Dylan Thomas : New Critical Essays*. Ed. Walford Davies. London: Dent (1972). 23-24면.
- Thomas, Dylan. *Dylan Thomas: Letters to Vernon Watkins*. London: J. M. Dent & Sons Limited, 1957. [LV로 표기함]
- _____.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Dog*. London: Everyman's Library, 1979.
- _____. *Selected Letters of Dylan Thomas*. Ed. Constantine FitzGibbon. London: J. M. Dent & Sons LTD, 1966.[SL로 표기함]
- _____. *The Collected Poems of Dylan Thomas*. New York: New Directions, 1957. [CP로 표기함]
- Tillich, Paul. *The Eternal Now*.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 1963.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